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어머니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 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최 씨가 딸 몰래 코바나콘텐츠 감사에세 먼저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사세행은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범 혐의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 처분은 법률상 범죄 혐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내리는 처분이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도 내려진다. 용산경찰서는 당시 서울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들었다.한편,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최 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이달 8일에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고 지난 14일 출소했다. 예정됐던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 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났다.